

- 주요 뉴스: 미국 S&P500 지수, 13개월래 최저 마감. 경기둔화 우려 확산 등에 기인
 -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높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전망
 - 유로존 5월 Sentix 투자신뢰지수, '20년 6월 이후 최저. 경기침체 우려 등이 영향
 - 중국 4월 수출증가율, 2년래 최저. 대외 여건 악화 및 국내 경제붕쇄 등이 원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3.2%],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21년 3월말 이후 첫 4000이하 마감. 기술주 매도 심화
유로 Stoxx600지수는 여행 및 기술주 약세 등으로 2개월래 최저 수준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20년래 최고 수준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1%,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저가매수 유입과 성장둔화 우려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4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75.5원, +1.5원) 0.1% 상승, 한국 CDS 상승

		5/9일	5/6일	전일대비			5/9일	5/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91.2	4,123.3	-3.20%	국채 금리 10y	미국	3.03%	3.13%	-9bp
	유럽	417.46	429.91	-2.90%		독일	1.10%	1.13%	-4bp
	중국	3,004.1	3,001.6	0.09%	CDS 5y	한국	43bp	42bp	1bp
	일본	26,319	27,004	-2.53%		중국	87bp	84bp	3bp
	한국	2,610.8	2,644.5	-1.27%	위험 지표	EMBI+	-	393	-
환율	달러지수	103.73	103.66	0.06%		VIX	34.75	30.19	15.10%
	유로화	1.0561	1.0551	0.09%		WTI유	103.09	109.77	-6.09%
	엔화	130.29	130.56	0.21%	원자재	구리	419.3	426.2	-1.61%
	위안화	6.7308	6.6668	-0.95%		금	1,854.2	1,883.8	-1.57%
	원화	1,274.0	1,272.7	-0.1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S&P500 지수, 13개월래 최저 마감. 경기둔화 우려 확산 등에 기인

- 5/9일 S&P500 지수(3991.24, -3.2%)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21년 3월말 이후 처음으로 4000선 붕괴. 다우 및 나스닥 지수도 큰 폭 하락(각각 -1.99%, -4.29%). 미국 10년물 국채금리(3.03% -9bp) 및 WPI(103.09 -6.1%) 가격 모두 큰 폭 하락
-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4월 수출입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졌으며, 미국 연준 인사들의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관련 우려가 투자심리를 저해
- Goldman Sach의 David Kostin은 인플레이션 불안 해소 전까지 높은 주가 변동성 지속이 예상되며, 유동성 감소 등으로 단기 내 증시의 추세 전환은 어렵다고 지적. 일부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4월 소비자물가 발표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신호가 발생해도 투자자의 불안 심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이날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주가 하락에도 금융시장이 질서 있는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 다만 일부 자산 가격은 고평가 국면에 있다고 지적. 한편 계속해서 잠재적인 시장 위험을 관찰할 것이라고 첨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 높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전망

- 카슈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확신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어, 이로 인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첨언.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개선되어도, 양호한 소비 등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
-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는 연내 2~3회의 0.5%p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 연준의 결정은 이미 매우 공격적이기에, 더 이상의 공격적인 대응은 필요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0.75%p 인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

■ 미국 3월 도매재고, 전월비 증가. 1/4분기 성장률의 소폭 상향 조정 예상

- 3월 도매재고는 전월비 2.3% 늘어 시장 예상치에 부합. 이번 결과는 2월(2.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이러한 재고 투자 증가의 지속은 1/4분기 성장률(-1.4%, 속보치)이 긍정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

■ 유로존 5월 Sentix 투자신뢰지수, '20년 6월 이후 최저. 경기침체 우려 등이 영향

- 해당 지수는 -22.6을 기록하여 전월(-18) 및 예상치(-20.8) 하회. 이번 결과는 러-우 전쟁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한편 세부 항목 가운데 기대지수는 -34를 나타내 '08년 12월 이후 최저치

■ 중국 4월 수출증가율, 2년래 최저. 대외 여건 악화 및 국내 경제붕쇄 등이 원인

- 4월 전년동월비 수출 증가율은 3.9%로 전월(14.7%) 대비 큰 폭 하락하며 '20년 6월 이후 최저치. 이는 대외 수요 부진 등에 기인. 한편 같은 달 전년동월비 수입 증가율은 0.0%로 전월(-0.1%)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정체 국면이 지속
- 중국 GDP에서 수출입 비중이 1/3에 이르기며 무역활동 부진은 향후 심각한 성장 둔화 위험 신호일 가능성. 또한 대외 수요 부진 및 경제붕쇄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심화 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 내에 수출입 회복은 어려울 전망

■ 중국 인민은행,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공할 방침

- 통화정책보고서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 안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 한편 최근 러-우 전쟁과 경제 붕쇄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 및 심각성 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

■ 일본은행,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기조 유지 재확인

- 3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정책위원들은 지금까지 지속된 저물가 여건의 변화 신호가 있으나 현행 완화기조는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저금리 지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 인도 중앙은행, 환율 방어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 최근 인도 루피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해당 조치를 단행. 관계자들은 인도 중앙은행이 60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루피화 약세를 용인하되, 질서 있는 약세가 발생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1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연은 총재 강연, 독일 5월 ZEW 경기기대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 인사들의 불확실한 언행,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 - Financial Times

(The Fed has changed its message, but not the way you think)

- 최근 미국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이 원인이라고 설명. 하지만 연준 인사들의 언행도 문제. 일부 인사들이 경기 연착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제어에 대한 신뢰가 약화
-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영향이 크므로 높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 현 상황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은 2% 물가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

■ 정유업계의 마진폭 확대, 글로벌 에너지 충격 심화를 초래 - 블룸버그

(Sorry, But for You, Oil Trades at \$250 a Barrel)

- 통상적으로 원유가격과 정제유가는 정비례 관계. 그러나 최근 WTI는 배럴당 11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디젤은 배럴당 175달러 내외에서 거래되는 등 정제유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 이는 정유업계의 마진폭 확대 등에 기인
- 연료 수요의 증가, 환경규제 강화,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생산능력 감소 등이 정유업계의 이익폭 증가를 유발. 이러한 상황은 유가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이 보이는 것 이상으로 강력할 수 있음을 의미

■ 미국 은행권, 금리상승에 따른 이익증가 효과는 경기침체 회피 시에만 유효 - WSJ

(Fed Rate Hikes Are Good for Banks—Unless They End in a Recession)

■ 첨단 IT 기업 주가, 생활 저변의 영향력 확대 고려 시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 - 블룸버그

(Tech Stocks Are Entering an Age of Uncertainty)

■ 러-우 전쟁, 과감한 유럽 개혁을 촉진할 전망 - Financial Times

(War can be catalyst for courageous reform in Europ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